

#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 13개 이전기관 채용률 38%...농어촌공사 85%·인터넷진흥원 50% 등 한전, 지난해 흑자전환 채용규모 회복...24일 합동채용설명회 개최도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의무 채용률을 넘어선 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85.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50%), 사학연금(45.5%), 한전KDN(43.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무 위기로 최근 3년간 채용규모를 대폭 줄였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채용 인원은 늘려 나갈 예정이어서, 빛가람혁신도시로의 지역인재 유입세가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발표한 '2024년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13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8.05%로 집계됐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으로 지정된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30%)은 충족한 것으로, 아직까지 전국 13개 혁신도시 평균치(41.47%)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경력직 및 연구직 등을 제외한 전체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3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혁신도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은 2018년 18%→2019년 24%→2021년 27%→2022-2024년 30%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85.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50%), 사학연금(45.5%), 한전KDN(43.3%) 등이 순위로 집계됐다.

최대 규모 공기업인 한전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30.8%로 기준치에 턱걸이했지만, 지

난해 하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채용 규모를 점차 재무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실제 한전의 2022년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은 232명,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71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막대한 부채와 누적적자 등으로 채용규모마저 줄여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과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각각 70명, 24명으로 기존의 30% 수준까지 줄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한전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90명으로 다시 회복됐고, 올해는 채용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한전의 방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더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매년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오는 24일 전남대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한전을 비롯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곳 등 총 34개 기관이 참여해 채용상담, 취업컨설팅부터 모의면접까지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어촌공사, K-농자재 기업 141억 수출 상담 성과 K-Food+ 수출상담회 해외기업 10곳 초청...15억 수출계약도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16-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상반기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에서 1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상담과 1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수출상담회로, 한국농어촌 공사는 농산업 부문을 담당했다. 공사는 유럽, 중동 등 해외 구매기업 10곳을 초청하고,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상담을 연계하는 등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

특히 국내 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구매기업을 위한 '품목 정보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계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주력했다.

공사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국내 농자재 기업 30곳과 함께 996만 달러(141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냈으며, 110만 달러(15억 원)에 달하는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수출상담회는 농산업 기업들이 해외 유력 구매기업을 국내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해외 진출의 좋은 발판"이라며 "하반기 상담회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농산업 기업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90개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60개사를 초청해 '하반기 농산업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미래 에너지사업 비전 제시...켄텍서 나주 글로벌 포럼 개최

9월 17~18일

나주시는 "오는 9월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에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국가 에너지산업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 켄텍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를 지향하는 나주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올해 에너지포럼은 9월 17-18일 빛가람혁신도시 내 켄텍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해 나주시는 포럼 추진위원회를 구성·출발했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문승일 켄텍 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선임하고, 김강정 나주시의원, 김성철 한전KDN 전력ICT기술원장, 김유신 전남에너지 산업협회장, 김진원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 조성처 실장, 박대식 목포대 교수, 박효연 전남대 교수, 주영우 전남대 에너지밸리팀장 등 에너지 분야 관련 민·관·학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올해 포럼 주제를 'DDD, Energy Transition'으로 정했다.

이 는 직류(DC), 분산에너지(DER), 디지털 인공지능(Digital AI) 에너지 전환의 출입말이다. 이어 포럼 개최 장소인 켄텍의 공간 구성 계획을 공유하고, 주제별 연사 초청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 국제 협력 확대 전략 등도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4'에서는 '분산에너지, 수소에너지, 원자력과 핵융합'을 주제로 UC버클리의 리처드 플러드 명예교수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국내외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 aT, 광주전남혁신자문위원회 개최...농산물 수급안정 등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상반기 광주전남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서동순 aT 전남 농수산수출팀장, 김두운 전남대 식품공학과 교수, 조우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우승현 호남청과 본부장 등 6명의 농수산식품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우리 농어촌·농어민의 안정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한 7대 혁신방향'이라는 홍문표 aT 사장의 방침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재 농수산업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농어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T의 주요사업인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등 분야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 등도 가졌다.

고정희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농수산식품업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PS, 사전 정비진단 서비스 고객 호응

누적 50건 돌파...신청 증가 추세

한전KPS는 "사전 종합진단서비스 누적 수행실적이 50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종합진단서비스는 한전KPS가 전문인력을 투입해 최적화된 정비 전략을 도출해내기 위해 시행한 서비스로,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전 건설·시운전 단계부터 경상운전 중인 설비까지 사전에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정비방안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전KPS는 2011년 당진 2호기를 시작으로, 2019년 신령탄복합발전소 시운전 공사,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까지 누적 수행실적 50건을 달성했다.

해당 서비스 시행으로 각 발전소 운영회사들은 공사기간 단축, 유지보수 비용 절감, 안정적인 전

력공급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서비스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전KPS는 고객의 호응에 힘입어 분사 주관부서와 현장 사업소,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비를 맡기는 고객사의 맞춤형 정비 전략 수립 및 현장 환경을 반영한 계획 추진,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제공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화력 및 복합발전소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원자력·수력·양수·민자발전 등 다양한 발전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사전 종합진단서비스는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종합진단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발전소의 운영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